

최초 연임에 도전, “학생들의 신뢰 이끌어낼 것”

‘리액션’ 총학 후보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Q. 선본 리액션(Re:action) 소개와 출마하게 된 계기는?

‘리액션’은 48대 총학에 이어 학생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의 연합선본이다.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6개 단과대학(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선본은 단순히 당선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공통된 뜻으로 모였다. 이전 총학 회장으로서는 받았던 평가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더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

Q. 재임에 도전하는데 이전 총학과 달라지는 49대 총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처음 당선이 되고 공약을 이행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시간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다. 예를 들어 지난 건물 건축이나 시설 개선 문제를 다루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학교를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보

다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롭게 준비하는 49대 총학은 학생들의 복지정책은 기존 총학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 아쉽다고 평가된 학사제도 개정과 대외적인 문제는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리액션(Re:action) 선본 공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허황된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고자 했다. 이번 선거 공약이 새롭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령 영통역 셔틀버스 노선 신설, 공약의 경우 처음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이 아니었지만 총학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중시하는 공약은 ‘캠퍼스 간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총학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노력한 결과 임시차원에서 통합을 이뤄 진학예정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국제캠을 분교로 인식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에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캠퍼스의 명칭 변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명칭 변경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울캠 총학과의 소통도 진행할 것이다.

Q. 이전 총학에서는 서울캠 총학과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서울캠 총학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선 후 학기 초에는 함께 일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각 총학이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문제처럼 중요한 학내 문제에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다고 생각한다. 대동제나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서울캠-국제캠 간 셔틀버스를 증차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학생회칙과 선거세칙 개정에 대한 공약도 있는데 개정의 방향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선거세칙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들을 위해 서러도 세칙에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고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재임을 위해 출마하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다. 학생회칙과 선거세칙 중 애매한 표현이나 예외적인 규정을 고쳐



▲ 정후보(좌) 김병경(체육학 2009), 부후보(우) 이은홍(산업경영공학 2015)

서 명확히 하겠다.

Q. 총학생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소개했는데 어떠한 홈페이지를 구상 중인가?

현재 총학생회 안내사항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생회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총학 이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지만 이들만으로는 12,000명의 학생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총학의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게 하고 싶다. 기존 학교 커뮤니티 홈페이지와 우리학교 학생들에 의한 커뮤니티 ‘쿠플라자’가 있지만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다. 새로 만들게 될 총학의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이는 총학이 앞으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48대 선거 때는 최초의 체육대학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번엔 최초의 연임을 시도하게 돼 의도치 않게 논란과 화제의 인물이 됐다. 하지만 어떠한 개인적 이익이나 의도 없이 열심히 일해 왔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직접 행동하면서 내가 다니는 우리학교가 모두에게도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겹쳐서 수용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이 보낸 신뢰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생들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학교를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

“화합을 위한 총여가 될 것”

기호 1번: ‘리액션’ 총여 후보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지난 총여 집행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인권에 대해 생각했다. 더 나은 경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넘어 서로의 인권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다.

Q. 남자 부후보가 출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출마 이유는?

‘총여는 여학생만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하지만 총여는 여학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남학생도 필요하다면 총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총여가 학생 전체를 위한 기구라는 인식

이 퍼지길 바라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Q. 현 총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가?

총여는 남학생에게 투표권을 개방하며 총여가 전체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이어받아 전체 학생을 위한, 화합의 기반을 다지는 총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총여 게시판을 설치해 학생과 보다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Q. 남학생에게도 총여 투표권이 개방됨에 따라 총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총여는 전체 학생의 권리를 위한 곳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화합하고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후마니타스칼리지 연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민교육 등의 교과목에서 총여가 함께할 수 있을만한 주제로 활동하는 학생을 봤다. 여건이 된다면 이런 학생을 총여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밖에도 공모전이나 토론회, 캠페인과 같은 행사를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싶다.

Q. 남/여 휴게실과 단과대 내 달거리카페 봉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시범적으로 휴게실에 야간 봉사자를 두고 운영했다. 휴게실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단과대 내의 달거리 카페까지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게실의



▲ 정후보(우) 정은재(시각정보디자인학 2015), 부후보(좌)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안전 문제 해결과 학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는?

항상 학생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총여가 되고 싶다. ‘화합’은 남녀의 화합뿐 아

니라 학생과 총여의 화합도 의미한다. 특히 남자 부후보의 출마를 통해 총여를 모든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앞에서 이끄는 학생회도 좋지만 뒤에서 학생을 받쳐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을 뒷받침해주는 학생회가 되겠다.

“아직은 총여의 역할이 필요할 때”

기호 2번: ‘재움’ 총여 후보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 학생이 학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

Q. 현 총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가?

현 총여가 ‘같은 여(如)’자를 지향했다면, ‘여자 여(女)’를 지향하고 싶다. 처음 총여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여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여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총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정원 앞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을 듣고 더욱 총여의 필

요성을 느꼈다.

Q. 남학생들에게도 총여의 투표권이 개방됨에 따라 총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남학생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총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남학생 중에서도 총여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점에서 총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Q. ‘성을 뛰어 넘어, 권리 찾기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총여의 설립 목적은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의 기본적인 역할은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리 찾기 캠페인은

여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Q.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총여 내에 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성범죄 피해자가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총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정이다. 총여 홈페이지나 전화를 설치해 상시 창구를 두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성평등상담실과 연락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안에 대해 총여가 함께 대응할 것이다. 또한 OT, MT 기간에 캠페인 실시와 가이드북 제작 등 성폭력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Q. 심야 규찰대 근로 장학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중앙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서 착안했다. 오후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오전 2시로 시간대를 나누고 각 시간대



▲ 정후보 황유민(의류디자인학 2016)

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조를 이뤄 학교를 순찰하도록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아직은 총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완전히 사

라지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학교를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